

## 삼국사기 잡지, 열전

최인호

### 1. 종묘와 제사

#### 1) 종묘

“신라의 종묘제도는 다음과 같다. 제 2대 남해왕 3년 봄에 처음으로 시조 혁거세의 사당을 세우고...제 22대 지증왕 때에 시조의 탄생지인 내을에 신궁을 창립하여 제사를 지냈다. 제 36대 혜공왕 때에 비로소 오묘를 제정하였는데, 미추왕을 김씨의 시조로 세우고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은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한 큰 공덕이 있었다 하여 모두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삼고,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당 둘을 합하여 오묘를 만들었다. 제 37대 선덕왕 때에 사직단을 세웠다.”

- 혜공왕 때 보다 조금 더 이른, 신문왕 때 당에서 제후오묘제를 수입하였음.

“가을 7월 1일 王(문무왕)이 죽었다...종묘의 주인은 잠시도 비워서는 안되니, 태자는 곧 관 앞에서 왕위를 잇도록 하라(신라본기 7권 문무왕 21년)”

“왕 아무개는 머리 숙여 재배하고 삼가, 태조대왕, 진지대왕, 문흥대왕, 태종대왕, 문무대왕 영전에 아립니다(신라본기 8, 신문왕 7년)”

- 예기 왕제편, 諸侯五廟 二昭二穆與大祖之廟而五

- 신문왕 6년 당과 외교관계가 재개되면서, 예기를 요청하자 당은 길흉요례를 보내 옴. 이 길흉요례는 천자에 대한 제후의 예가 근간이었다고 함.

참고, 채미하, 『신라 국가제사와 왕권』

#### 2) 제사

- 대사, 중사, 소사로 나누어 진행되었음. 중대부터 중국 제도를 수입하여 오악에 대한 제사가 진행되었음.

- 중국의 大祀는 천자가 행하는 가장 큰 제사로서, 주(周)대에는 天地와 宗廟에 제사 지냈다(《주례(周禮)》春官篇肆師條의 鄭司農·鄭玄). 그런데 신라에서는 大祀의 上位에 이미 神宮, 五廟, 社稷壇, 八禱, 先農 등의 농업관계신에 대한 제사가 따로 들어있으므로, 신라의 大祀는 중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天地神과 宗廟에 대한 제사가 들어있지 않고 三山만이 들어있음.

### 2. 김유신 열전에 나타난 책봉책 및 자주, 사대의식

- “당과 신라는 연합 공격하여 백제를 멸망...지금 싸워 얻은 백제 땅을 공들에게 식읍으로 나누어 주어 여러분의 공에 보답코자 하는데 어떻겠소...”

- 왕이 말했다. “당군이 우리를 위하여 적을 없애주었는데 도리어 그들과 싸운다면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겠는가” “걔가 주인을 두려워하지만, 주인이 자기의 다리를

밟으면 무는 법입니다. 어찌 두려움을 당하여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”

- 인덕 2년에 당 고종이 사신 양독벽과 임지고 등을 보내 예방하고 동시에 유신을 봉상정경평양군개국공에 책봉하고 식읍 2천 호를 주었다(等來聘兼冊 庸信 奉常正卿平壤郡開國公食邑二千戶)
- “백제는 오만으로 인하여 멸망했으며, 고구려는 교만으로 인하여 위태롭게 되었다...큰 나라의 밟으신 천자의 위엄에 힘입고 있으니 무엇이 걱정이겠는가”
- “황제가...유신에게도 조서를 내려 포상하고 당에 들어와 조회(入朝)하라고 유시하였는데, 유신이 가지는 못하였다. 이 조서는 그의 집안에 전하여 오다가 5세손 때 잃어버렸다”

### 3. 기타열전에 나타난 당-삼국관계

- 짐이 이미 백제를 멸하고 너희 나라의 근심을 제거하였는데, 이제 고구려가 자리의 험함을 믿고.. 큰 나라를 섬기는 예(事大之禮)를 어기고 이웃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는 의리(善隣之義)를 저버리고 있다...
- 제상이 아뢰었다...고구려는 큰 나라이고 그 왕 또한 어진 임금이었기 때문에 신이 한 마디 말로써 그를 깨닫게 할 수 있었사오나, 왜인 같은 경우는 말로써 깨우칠 수 없으니 속임수를 써야...
- 고종이 남생에게 평양도행군대총관 겸 지절 안무대사를 제수하니 그는 가물, 남소, 창암 등의 성을 바쳐 항복하였다. 황제가 또 서대사인 이건역에게 명하여 남생의 군중에 가서 위로하게 하고... 이듬해에 그를 불러 조정에 들어오게 하여 요동대도 독현도군공으로 바꿔주고 서울에 집 한 채를 하사하였다... 조서를 내려 아들을 요수로 보내 위로하고 상을 하사했으며 돌아오자 우위대장군변국공으로 오려주었다.